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8월 7일(금)
(음력 6월 25일)
Пятница
7 августа 2026 г.
№ 31 (12198)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8월의 2번째 일요일은 건설근로자들의 날로 기념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건설중인 '레겐다' 주거단지. **(이예식 기자 촬영)**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 여러분!

건설근로자들의 날을 기념하여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만들어가시는 건설근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편안한 주택,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학교, 현대적인 산업시설들, 여러분이 건설한 모든 건물은 여러분 손의 따뜻한 온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할린주의 도시와 마을에 새로운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수천의 주민들이 노후주택으로부터 잘 수리된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있습니다.

쿠릴열도 중에서 가장 외딴 섬인 파라무쉬르 섬에는 일반 공립학교가 건설되었고, 지역 병원이 건설 중입니다. 또한 사할린테크 과학교육 캠퍼스단지 건설도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들을 위한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건설근로자의 날을 맞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과 가정의 번영을 기원하며 건설근로자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사할린 주지사, 주블라디보스토크 중국 총영사와 주러 인도대사와 회담

〈사할린 에너지〉국제포럼의 일환으로 8월 1일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주블라디보스토크 중국 총영사관의 우더민 총영사와 주러 인도대사관의 비나이 쿠마르 특명전권대사와 회담을 열어 경제 및 인도적 분야에서 외국 협력업체와 사할린주와의 협력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주블라디보스토크 중국총영사관의 우더민 총영사와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물류, 석유.가스산업 및 관광산업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해외 협력기업의 투자는 사할린주의 발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할린주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고,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확대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지사는 중국의 사업가들에게 석유·가스산업단지와 쿠릴열도 지역에 대한 자체 투자기획들의 개발을 요청했다. 양측은 별도로 사할린과 중국 간 항공편 운항 노선 및 지역을 확대하고, 무인기 공동개발과 교육 협력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의 우더민 총영사는 "올해는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관계 및 전략적 상호협력을 수립한 지 30년이 되었고, 양국 간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2026년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을 했고, 양국 정상은 향후 동반자관계 강화에 대한 공동성명을 체결했다. 우리는 함께 이러한 합의를 실행해갈 수 있을 것이다. 사할린주는 석유, 가스, 석탄 자원이 풍부하고, 물류 경로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어 아시아 국가들로 물품 운송을 위한 독보적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사할린 주지사의 지도 아래 사할린주가 경제개발에 큰 성공을 거두어 투자유치 측면에서도 러시아 내 3위를 달성한 것을 알고 있다."며 관심을 표했다.

주러 인도대사관의 비나이 쿠마르 특명전권대사와 회담에서 사할린 주지사는 〈20230년까지 러시아-인도 경제협력의 전략 분야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호협력을 심화시킬 준비가 되어있음을 강조하며 "인도 기업들은 이미 사할린주의 핵심적인 대륙붕개발기획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인도의 협력기업들이 석유 및 가스서비스를 위해 사할린 지역에 건설된 석유 및 가스산업단지의 공식 운영기업이 되길 제안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양측은 협력 및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한 가운데 비나이 쿠마르 대사는 "현재 극동지역과 인도의 첸나이 항은 동부 해상회랑으로 북극항로 공동개발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 양국 간 무역 및 투자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사할린주는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전략적 지역이다. 또한 우리는 보건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찾아보고, 사할린주의 석유 및 가스를 비롯한 기계기술 분야의 전문기술력을 전수받기 위해 사할린 국립대학교에서 인도의 대학생들의 연수 및 교육실습의 교류를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나이 쿠마르 인도대사는 사할린주의 대표단을 2026년 9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인노프롬. 인디야〉 포럼에 초청하고, 양측은 문화 교류에 대한 전망도 논의했다.

2026년 하반기 신문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1 개월** 구독료는 **147,6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단신

러시아 태평양함대, 극동 훈련에 군함 60척 동원

8월 4일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동해와 오호츠크해 및 태평양 북서부 해역에서 전개되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의 핵심 목적은 극동 국경방어의 역량을 점검하는 데 있다. 훈련에 1만 3천 명 이상의 군 병력, 약 60척의 군함 및 잠수함, 항공기, 헬리곱터, 무인기 등 30여 대가 동원되었다. 훈련 과정에서 부대들은 고정밀 무기를 포함한 현대식 무기체계 운용 및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부대 지휘관들이 관할 구역 내에서 병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비정규 작전 과제 해결의 준비태세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할린주, 민방위 대피시설 평가 결과 발표

사할린주에서 민방위 보호시설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심사에 주 전역에서 총 7개 시설이 참가했으며, 방공호는 두 개 범주로 수용 인원에 따라 150명 이하 시설과 600명 이하 대규모 시설이 평가되었다.

사할린주 비상대책본부가 지자체별 현장 실사 실시, 보호시설 상태에 대한 심사 및 평가로 보고서를 분석하고, 심사했다. 최종 선정 결과, 150명 이하 수용시설 부문에서는 사할린 극동철도 지역본부가 1위, 600명 이하 부문에서는 사할린주 민방위·비상대책본부, 소방국 관할 대피시설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사할린 주지사, 자원봉사자들에게 새로운 휘장 수여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사할린주 자원봉사자' 휘장을 제정하고, 올해 1만 명에게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첫 수상자 11명(유즈노사할린스크 '노인자원봉사자' 및 '행복한 모성' 참가자)에게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직접 휘장을 전달하고, 지역 주민 자원봉사 참여의 확대를 강조했다.

러시아 최대 자원봉사 플랫폼인 '도브로.에르에프'에는 현재 사할린·쿠릴 주민 3만1천여 명이 등록되어 활동 중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어린이 폴리클리닉의 현대식 신관 열려

8월 3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젤레즈노도로나야 거리에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어린이 폴리클리닉의 신관이 열렸다. 의료시설은 약 1만 1천 명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으며, 2교대 250명까지 환자 진료가 가능하다. 이 시설은 예멜리야노와 거리 본관의 과밀현상을 완화시킬 전망이다.

새로운 병동에는 소아과, 신경과를 비롯한 주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상시 진료하고, 희귀질환 및 급성질환 전문의도 배치되었으며, 기능 검사실, 초음파실, 엑스레이 촬영실 등 다양한 최첨단 장비의 검사실을 갖추고 있다.

블라디보스톡 주재 이태림 총영사, 사할린 방문

이태림 총영사(왼쪽으로부터 6번째), 국장현 소장(왼쪽으로부터 첫번째)와 사할린 한인 사회단체 및 언론사 대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주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 이태림 총영사가 사할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은 '사할린 에너지' 국제경제포럼에 참가하는 것이었다. 이태림 총영사의 사할린 방문 일정은 매우 빡빡했다. 총영사는 포럼 참가 외에도 사할린 주지사 및 가스프롬 엑스포트 대표와의 면담, 한국 교민 기업인 및 사할린 한인 사회 대표들과의 간담회 등을 가졌다.

7월 31일(금) 사할린주 정부 청사에서 총영사는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총영사는 국장현 주유즈노사할린스크 대한민국 영사출장소장,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이규승 선임연구원과 함께 '아브로라' 극동항공사 콘스탄틴 수호레브리크 대표이사를 만나 러시아 극동 지역과 한국 간의 직항 노선 재개 문제를 논의했다.

8월 1일(토)에는 사할린 한인 사회의 주요 단체 및 언론사 대표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사할린한인연합회 유연희 부회장,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러시아 사할린지부 최금순 담당자,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림종환 회장,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천영곤 회장, '사할린' 국영방송사의 '우리말' TV 방송국 김춘자 국장, 새고려신문사 배 윅토리아 대표 등이 사할린 측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인 사회 관계자들은 각자 대표하는 단체와 기관, 그리고 주요 추진 사업들을 소개했다. 이태림 총영사는 이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질문을 이어갔다. 특히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고 한인의 역사와 전통 풍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현지 활동가들의 바람에 크게 공감했다. 이날 2시간 넘게 이어진 간담회는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러시아어에 매우 능통한 러시아 전문가인 이태림 총영사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노어문학과를 졸업하고,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MGIMO) 법학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러시아 현지와 한국의 대형 법률회사 다국적 컨설팅 기업에서는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기획조정관, 대한민국 외교부 국립외교원 교수로 활동한 바 있다.

올해 5월 말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에 부임한 이태림 총영사는 러시아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최초의 여성 총영사다.

(배순신 기자)
(사진: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제공)

8월 유즈노사할린스크, 동포단체 주최 대규모 행사 개최

8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한인동포 단체들이 주최하는 두 개의 대규모 행사가 열린다.

오는 16일(일) 오후 2시, 가가린 공원의 '코스모스' 경기장에서는 한반도 광복 81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행사는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 주최, 주정부의 지원 아래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사할린 예술단체와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한국 전통 공예 활동교실과 비빔밥·빤세·찐빵 등 한식 마스터클래스도 마련된다. 한민족 전통 무술인 씨름과 태권도 페스티벌도 개최된다.

22일(토)에는 '알레야' 쇼핑몰 야외장에서 제5회 '라면' 페스티벌이 열린다. 이번 축제는 민족 단결의 해를 기념하여 마련되었으며, 사할린한인연합회(회장 고영순)가 주최한다.

프로그램에는 라면 시식회, 음악 및 춤 공연, 각종 체험 활동, 스포츠 경기, 게임 및 퀴즈 대회 등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축제에는 제주도에서 특별 손님들이 방문할 예정이다.

(배순신 기자)

건설근로자의 날 맞아… 사할린주 건설업계 성과와 현황

러시아 건설근로자의 날이 공식 제정된 지 올해 70주년이 되는 해다. 최초의 건설의 날은 1956년 8월 12일에 기념했으며, 이후 매년 8월 둘째 주 일요일에 기념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인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사할린주는 거듭 변모하고 있다. 도시와 마을이 새로 단장되고, 신규 주택과 사회 인프라 시설이 들어서며, 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2024년 사할린주의 지역내 총생산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로 집계됐다.

2026년 1~5월 기준 사할린주 건설업체 종사자 수는 1만 9천300명으로, 주내 전체 기관 종사자의 10.0%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건설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임금은 14만 3천500루블리로 밝혀졌다.

2026년 상반기 건설업 공사 실적은 681억 루블리에 달했고, 7월 1일 기준으로 정규 종사자 수가 15명을 초과하는 건설업체(소기업 제외)의 건설 도급계약 총액은 196억 루블리이다.

2026년 준공된 건축물 가운데 93.9%는 주거용 건물로 파악됐다. 올해 1~6월 총 712동의 주택이 건설되었으며, 연면적은 8만 8천100㎡, 이는 886가구에 해당된다. 극동연방관구 11개 지역 중 사할린주는 주택 준공 실적에서 7위를 기록했다.

상반기 주택 건설은 세웨로-쿠릴스크시를 제외한 사할린주 전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졌다. 준공 주택 면적 중 유즈노사할린스크가 5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아니와시 22.9%, 코르사코브시 9.3%로 뒤를 이었다.

올해 1월~6월 전체 준공된 주택 면적 중 개인 주택 건설 비중은 88.2%였다. 개인이 건설한 주택은 703채, 연면적 7만 7천300㎡로, 2025년 상반기 대비 7.1% 증가했다.

농촌 지역의 주택 건설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51.0% 늘어난 3만 1천800㎡로, 전체 주택 준공 면적의 36.1%를 차지했다.

2026년 초부터 현재까지 비주거용 건물 46동이 준공되었으며, 총 연면적은 2만 9천800㎡이다.

주요 사회제반시설 건설로는 세웨로쿠릴스크의 288석의 규모 일반학교, 유즈노사할린스크의 교대당 250명을 진료할 수 있는 아동병원, 샤흐쵸르스크 부락의 비즈니스센터,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쇼핑·오락센터, 코르사코브시 오죠르스코예 마을의 관광단지 등이 준공됐다. 또한 코르사코브시 오죠르스코예 마을과 돌린스크시 소웨츠코예 마을에 자동화된 블록모듈형 가스 보일러시설이 건설됐다. 달네예 가스분배소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열병합발전소, 아니와시 미출료프카 마을, 코르사코프시 다치노예 마을까지의 마을 간 가스관 86.7km가 매설됐다. 노글리키 마을에서는 하수도시스템 재건 공사가 진행됐다.

(사할린주통계국 제공)

이모저모

사할린에서 〈도시의 교향곡〉에 고전 음악과 창작곡 합연

7월 30일(목)에 〈도시의 교향곡〉 기획이 2개의 문화행사를 결합하여 조성한 '노래하는 박물관'기획 무대에 관객들을 앞에 두고 국내 여러 지역들에서 온 작곡가들이 섰다고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 논나 라브리크 장관이 소식을 전했다.

이들 음악인들은 7월 31일부터 8월3일까지 웨스토츠카 마을에서 열린 제 12회 〈아포오스트로브(사할린 창작곡)〉축제에 참가차 방문했다. 음악인들이 부르는 깊은 울림 있는 시적 의미에 사할린의 관객들은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또한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마당에서는 알렉산드르 로파틴 바이올리니스트가 창작곡을 비롯해 세계적인 히트곡을 고전음악으로 편곡한 곡들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해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모든 축제 현장에서 생음악이 울려퍼졌고, 사할린의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들이 겐나지 녜웰스코이 기념 동상 뒤에서, '드위족', '체호브의 소공원'에서 창작곡들을 들려주었다. 주 문화기관들이 방문객들을 위해 다채롭고, 즐거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한 가운데 방문객들은 활동교실과 퀴즈대회, 디지털 게임을 비롯해 특별한 구역에서 기념사진도 찍었다. 또한 팝콘 기념품 만들기, 깃털펜 만들어보기, 영상메시지 제작, 고대 루시의 역사에 대한 십자말풀이 등의 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논나 라브리크 장관은 매주 열리는 〈도시의 교향곡〉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매력적인 행사가 되고 있고, 이 기획이 문화적 휴식을 위한 아주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며, 문화축제는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지역 문화.고문서부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기획은 8월 6일 도시 거리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Городская симфония» объединила на Сахалине авторскую песню и классическую музыку

В четверг, 30 июля, проект «Городская симфония» объединил сразу два ярких культурных события. На сцене проекта «Поющий музей» перед слушателями выступили авторы-исполнители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Информацией поделилась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Музыканты приеха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для участия в XII открытом фестивале «АПОстров», который прошёл с 31 июля по 3 августа в посёлке Весточка. Они исполнили песни с глубоким поэтическим смыслом, которые очень тепло встретили сахалинские зрители. Кроме того, в сквере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выступил маэстро Александр Лопатин — он порадовал гостей игрой на скрипке, исполнив собственные сочинения и мировые хиты в классической аранжировке.

Живая музыка звучала на всех площадках фестиваля. Сахалинские музыканты разных поколений и жанров представили свои песни в «Движке», «Чеховском сквере» и на сцене за памятником Геннадию Невельскому.

Областные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подготовили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большую развлек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Гости участвовали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викторинах и интерактивных играх, а также фотографировались в специальных зонах.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ли сделать сувениры из попкорна, изготовить перьевые ручки, записать кинопривет или разгадать кроссворд по истории Древней Руси.

Как отметила Нонна Лаврик, «Городская симфония» каждую неделю становится главным местом притяжения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ект предлагает самые разные варианты для культурного отдыха. Министр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фестиваль проходит при поддержк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проект вернется на улицы города уже 6 августа.

태평양 함대 선박들, 코르사코브 경유 〈2026 진실의 힘〉 항해에 나서

2026년 9월 〈2026 진실의 힘〉 애국촉진 행사가 시작되어 전투함 전대가 해군의 발상지를 향한 항해를 시작해 콜릐마, 사할린, 캄차트카, 연해주, 하바롭스크 변경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주요 기항지는 오호츠크항이며, 295년전 바로 이곳에서 현재 태평양함대의 전신인 오호츠크 군사 함대가 창설되었다. 또한 마가단 항구와 코르사코브, 와니노, 우스트-볼셰레쯔크항에도 기항할 예정이며, 행사의 마지막 최종 기항지는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 함대의 주요기지이다.

각 항구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해군 예술단의 공연과 해병대의 시범공연, 군 무기 및 군 장비 전시회도 열고, 태평양 함대 박물관의 독특한 전람회가 열리며, 해군들은 군사적 영광의 장소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용맹에 대한 안보교육을 하며, '윤아르미(청소년 군관학교)' 학생들의 엄숙한 입단식이 진행된다.

(8면에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연방 장려금 경연 수상자 시상

'로스몰로죠쥐. 그란트' , 대통령 문화추진기금, 대통령 장려금재단, '최고들을 위한 장려금'이 주관한 연방 장려금 공모전의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7월 31일 유즈노사할린스크 '마야크' 아트공간에서 열렸다. 상을 받은 우수 기획의 제작자들은 자신의 기획을 실현하기 위한 장려금을 받게 된다.

주최 측은 지난 2년간 연방 장려금 공모전 우승자들의 수가 사할린주에서 3배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사할린 제1부지사 세르게이 바이다코브는 공모전을 통한 장려금 수혜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이는 대규모 작업의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연방차원 장려금 공모전의 우승은 여러분이 추진하려는 기획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획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생활에서부터 소소한 일상에 이르기까지 그 기획을 구현하는 것이며, 기획 성취를 위해 여러분이 지원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번 장려금 공모전에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응모한 열 개의 기획이 상을 획득한 가운데 자연환경보호, 교육, 스포츠, 포용적 및 문화적 부문의 기획들이 포함되었다

수상자 중 코르사코브 지역의 안톤 브도윈은 기획 참가자들과 함께 모네론 섬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 관광을 기획한 〈모네론: 자연에 다가가다〉로 68만 루블리의 장려금을 받았다. 우글레고르스크 지역의 예카테리나 웨르니츠는 5세-10세 아동과 발달장애아들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을 기획한 〈가능성의 지대〉로 58만 3천 루블리를 받았고, 또한 타라나이 마을의 청소년들을 위한 '연극스튜디오', 아니와 지역의 〈브녜 세티(오프라인)'보드게임 클럽과 '놀 수 있는 주택가' 공간 기획, 홈스크 지역 프라우다 마을의 지적장애아들을 위한 교정프로그램, 유즈노쿠릴스크 지역의 쿠쉬나르 가상현실 관광기획, 포로나이스크의 북방소수민족 원주민들의 문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이 장려금을 받았다.

사할린주 청년사업청의 아나스타시야 코제펜코 청장은 사할린의 기획들이 연방수준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며 "사할린주 생활에 실현될 모든 기획은 우리 지역을 변모시키며, 청년들과의 활동으로 새로운 추세를 이끌고, 계몽 및 창의적 발전을 위한 독창적 행사를 개최하며, 새로운 관광명소를 창출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획 공모전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청소년과 아동' 국민기획의 일환으로서 사할린주 청년사업청은 공모전 참가자들이 연방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서 작성을 돕는 교육세미나와 실습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할린주정부 자료에서)

체육인의 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대규모 스포츠대회 및 경품 추첨으로 기념

8월 8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가가린 시 공원에서 체육인의 날을 맞아 행사가 열려 주최 측이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시민들과 방문객들을 위해 풍성한 행사들을 준비한 가운데 다채로운 경기와 오락행사 및 활동교실이 열린다고 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체육인의 날 개막식은 공원 내 무도회장에서 10시 30분에 시작되며, 11시에는 방문객들을 위해 상호작용활동 구역이 개방된다. 〈사할린 기록경신 〉 은 주요 행사장 중 하나로 여기에서 참가자들은 팔굽혀펴기, 턱걸이, 제자리 멀리뛰기, 복근 운동, 줄넘기, 플랭크(plank 팔꿈치로 팔굽혀펴기), 축구 덩크슛, 농구 슛, 하키 퍽 골에 던지기, 스쿼트 자세 등 종목에서 다양한 기록 경신에 도전할 수 있다.

가장 활발한 참가자들에게는 특별 기념품을 증정하고, 완벽하게 모든 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참가자에게는 경품 추첨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져 행사 협찬과 협력사로부터 자전거를 비롯해 다른 귀중한 선물을 받게 된다.

주최 측은 건강하고 활발한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모든 분들이 행사에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그 꽃 / 고은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산을 오를 땐 오직 정상만을 생각하지요. 정상 정복. 이 세상을 한참 내려다보고 싶은 마음이었기에 등산객들은 지금도 새벽부터 굳은 몸을 움직여 가며 산을 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마철에는 판초 우위를 챙기고, 겨울 철에는 아이젠과 스틱이며, 고글도 챙긴 뒤 오르곤 했었지요. 한 두 달에 한 번씩 친구들과 산행을 즐기던 전 요즘 잠시, 아니 한참을 쉬는 중입니다만.

무릎이 좋지 않아 한의원에서 침 좀 맞다 보니 일단 등산부터 미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산행이 예정된 날은 일찌감치 일어나 아무 것도 먹지 않았지요. 그저 루틴처럼 굳어진 버릇같은 건데, 점심 역시 배는 몹시 고프고 힘도 하나 없는 편이지만 도대체 뭐가 됐든 먹지 않는 성격입니다. 산에서 뭘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기보다 도시락을 잔뜩 싸갔다가 뚜껑도 열지 못한 채 귀가한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왜 뚜껑도 못 열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뚜껑 열 힘도 없거든요, ㅋ.

제가 오른 산 중 가장 근사했던 산의 이름은 덕유산! 귀때기봉인가 중봉인가 그 즈음에서 좀 쉬어야 하는데, 믿어지지 않을 만큼 바람이 쌔고, 아름다운 산새는 뒤로 미루더라도, 너무 춥고 참 힘들었던 기억이거든요. 이제 막 산이 좋아졌을 때 올랐으니, 쉽지 않은 게 당연했을 겁니다. 이게 좀 창피할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의 등산객들은 덕유산 정도면 거의 '껌'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던 겁니다. 방한용품도 챙기지 않고, 아내가 싸 준 불고기며 쌈, 채소, 스팸, 장조림, 김치 볶음, 멸치 조림 등이 잔뜩 들어간 도시락을 들고 친구들과 고교 시절 때처럼 정상에서 야무지게 먹으며 맥켈란을 비울 생각이었거든요. 그 코스는 정말 훌륭한 게 정상에 힘들게 오르면 그 뒤에는 케이블 타고 무주리조트로 내려올 수 있어, 부지런히 오르기만하면 정상에서 여유를 부릴 수 있어, 아마 지금도 등산러들이라면 선호하는 코스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너무 불더군요. 거기 귀때이봉인지 어딘지부터 군대 시절이 떠오를 만큼 칼 바람이 부는 걸 보고 뭔가 잘 못 됐구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완연한 곡선이 아름다웠던 중봉을 오르는데, 바람이 도무지 너무 쌔 자빠질 뻔만 여러 번, 그 때 알았던 거지요. 덕유산, 절대 만만한 곳 아님. 돌이켜 생각해보니, 한라산 오를 땐 좀 더 젊었으니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겁니다. 아이젠 신고 스틱도 없이 막 뛰어내려오던 그런 날들이 물론 있었지만, 체력이 이제 그 때만큼은 안 된다는 걸 알고 나니, 서글퍼지더군요. 고은 시인님의 저 시가 와 닿는 건, 철학적으로 삶의 통찰을 느낀다기 보다, 정말이지 저는 내려올 때 다, 다, 보이더라고요. 오를 땐 그저 고개 푹 숙인 채, 얼른 계획한 시간 안에 정상까지 올라야 한다, 이런 생각 뿐이었는데, 내려올 땐 뭉클할 만큼 산새가 참 아름답곤 했을 테니.

덕유산만큼은 같은 코스로 두 번 올랐는데, 올 겨울 아들과 한 번 더 오르고 싶은 마음에 요즘엔 아들을 꼬시는 중입니다. 이제 약속은 받아 놨고, 리조트에서 며칠 묵으며 아내까지 합류해 스노우 보드를 타면 좋겠네요. 좋은 술과 기름진 음식을 떠올리며 중봉에서 늦게까지 세상을 내려다볼 마음이건만, 불안한 마음 역시 뒤따릅니다. 느림보 거북이처럼 오르다 간 중봉에서의 여유고 뭐고, 케이블 막차 타러 또 주구장창 뛰어야 할 테니. 아내는 산에 오르는 건 싫으니, 리조트에서 기다리겠다고 했고, 아이 참, 그냥 덕유산 오르는 건 내년이나 내후년 겨울 쯤에나 타자고 해야 할까요? ㅋ."

(서울에서 허진원)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김 치 보

관리번호	7549		
성명	김치보	한자	金 致 寶
이명	金 聖 俊 金 致 甫	성별	남
생년월일	1859-09-17	사망년월일	(1941-11-18)
본적	평안남도 평양		

공훈록

평남 평양(平壤) 사람이다. 노령 연해주에서 독립운동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1908년경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주하여 한민회(韓民會)와 관계를 맺고, 청년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1909년 미주 국민회(國民會) 블라디보스톡 지회 회원으로서, 같은 해 4월에는 청년돈의회(靑年敦義會)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일하였다. 1910년 일제의 한국 강점을 규탄하는 성명회(聲明會) 선언서에 서명하였다. 성명회는 1910년 8월 23일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시베리아 지방의 한인들이 블라디보스톡 개척리 한인학교에서 조직하여 대한의 국민된 사람은 대한의 광복을 죽기로 맹세하고 성취한다는 종지(宗旨)를 내외에 알리고자 하였다.

김치보는 1910년 12월 28일 블라디보스톡에서 조직된 자선공제회(慈善共濟會)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1911년에는 권업회(勸業會) 통신부장으로 활동하였다. 권업회는 한인들이 러시아에서 러시아당국의 공식인가를 받고 조직한 최초의 한인 단체로서, 1911년부터 1914년까지 4년 동안 연해주 흑룡주 지역의 대표적인 재러한인의 권익옹호기관이자 독립운동단체로서 활동하였다. 권업회는 「권업신문」의 간행, 교육진흥활동, 한인의 자치활동, 토지조차와 귀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권업회가 해산된 후 「한인신보」 발기회 고문단장으로 활동하였다. 「한인신보」는 「권업신문」의 후신으로 민족의식 고취에 기여한 신문이었다.

1919년 3월 26일 블라디보스톡에서 대한노인동맹단의 발대식이 있었다. 이들은 이날 밤 김치보의 집에서 창단식을 갖고 단장에는 김치보가 선임되었다. 노인동맹단은 대표자 6명을 선정하여 조선총독부에 파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또 단원 중에서 결사대를 모집하여 국내로 들여보내거나 또는 단원 150명을 국내로 파견하여 3·1운동을 확산시킬 계획도 세웠다. 그리하여 1919년 강우규(姜宇奎) 의사를 서울로 파견하였다.

강우규 의사는 7월 8일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하여 원산에서 약 1개월 체류하다가 8월 8~9일 경 서울로 들어와 9월 2일 서울역 앞에서 신임총독 재등실에게 폭탄을 투척하여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1920년 블라디보스톡에서 거행된 3·1절 축하기념식에서는 재무부장으로 한인들의 민족의식 고취에 기여하였다. 즉 1920년 1월 31일 연해주에서는 러시아 연해주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이 정부는 한인 독립운동에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이에 한인독립운동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1920년 2월 23일 오후 1시 신한촌의 유지인사들은 각 단체 대표자회를 개최하고 협의한 결과 2월 27일부로 대한국민의회 의장 서리 한창해(韓蒼海)와 서기 대리 전일(全一)의 명의로써 통지서를 각 지방에 발송하여 각 지방이 모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3·1독립선언기념회를 갖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무부장에 김치보가 선출되었다. 이후 그는 1920년 4월 신한촌 참변 이후 무기수집, 애국청년 군사훈련 등을 전개하다가 일제에 체포되었으나 탈출, 만주 훈춘(琿春)에서 살다가 서거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6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再發掘韓國獨立運動史(韓國日報社, 1987) 第1卷 75面
· 韓人新報(1917. 9. 30)
· 高等警察要史(慶北警察部) 129·774面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第2卷 774·779·815面
· 韓國獨立運動史(國史編纂委員會) 第1卷 985面
· 1910년대 大韓人國民會 시베리아지방총회의 성립과 활동(朴烜) 97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770~773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4卷 194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5卷 198~204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1輯 83面
· 新韓民報(1909. 2. 17, 10. 27)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第3卷 24·463面
· 武裝獨立運動秘史(蔡根植) 45面

묘소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편집 이철수)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Август с корейским колоритом

В август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танет центром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 сразу два крупных праздника подготовили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16 августа, в воскресенье, в 14:00 на стадионе «Космос»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ени Ю.А. Гагарина состоится праздник в честь 81-й годовщины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рганизатор –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ООСК).

Гостей ожидает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от сахалинских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и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а также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и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е (бибимбап, пянсе, тинпан). Состоится фестиваль по традиционным боевым искусствам – ссирым и тхэквондо.

Организаторы сообщили, что по многочисленным просьбам жителей будет возрождена традиция спортивных состязаний: бег, бег парами с завязанными ногами, прыжки с мячом, бег со скакалкой.

22 августа, в субботу, на территории ТРЦ «Аллея» пройдёт V фестиваль «Рамен», посвящённый Году единства народов. Его организатор – 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СК). В программе – дегустация рамена, музыка и танцы, мастер-классы, спортивные игры и конкурсы. Ожидается, что на фестиваль приедут гости с острова Чеджудо.

С **26 по 29 авгус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йдёт кинофестиваль «Сахалинский экран».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ждут фильмы и анимация, созданные островными 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ами. Зрители увидят новые работы Антона Дока, Владимира Ижендеева, Александра Ли, Ивана Чанова, Дениса Хашба, Якова Мязина и других авторов.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запланирован показ фильма «Местные» (режиссер Антон Дока, продюсер Сергей Ха) – об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дготовила Виктория Бя

Ли Минхван - герой националь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В рамках кампании «Календарь памяти» в августе мы вспоминаем Ли Минхвана (이민환, 李珉煥), известного также под именами Ли Сын (이승, 李承) и Хон Пха (홍파, 洪坡), - участника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организатора вооружённого подполья и одного из заметных деятелей антияпонского сопротивления в Маньчжурии и российском Приморье.

Ли Минхван родился 4 марта 1899 года в уезде Хонвон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Хамгён в бедной крестьянской семье. Рано лишившись родителей, он воспитывался в доме старшего брата, помогал ему вести хозяйство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изучал китайскую письменность. Уже в юности будущий борец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отличался решительным характером. В 1917 году он расправился с корейским полицейским, который под предлогом проведения санитарных проверок издевался над жителями деревни, после чего был вынужден бежать в Маньчжурию.

В марте 1919 года Ли Минхван участвовал в массовой антияпонской демонстрации в Лунцзине, вдохновлённой Первомартовским движением в Корее. Затем он перебралс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где вместе с группой молодых патриотов создал организацию «Сонён мохомдан» (букв. «Отряд юных авантюристов»), став его секретарём. Участники организации создавали отделения в корейских поселениях Маньчжурии и Приморья, собирали средства, закупали оружие и переправляли его партизанам. В конце 1919 года Ли Минхван побывал в Шанхае, где встретился с руководителем «Ыйёльдан» Ким Вонбоном и договорился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двумя организациями.

В 1921 году он тайно вернулся в Корею, чтобы вести там подпольную работу, однако в декабре того же года Ли Минхвана арестовала японская полиция. Суд приговорил его к пяти годам заключения, но уже 25 августа 1922 года он совершил дерзкий побег и вернулся в Приморье. Позднее Ли Минхван говорил, что отмечает день рождения дважды в году: первый раз – в день своего появления на свет, а второй – в память о побеге из тюрьмы и обретении свободы.

Вернувшись в Россию, он вступил в партизанский отряд Им Бёнгыка и участвовал в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январе 1923 года Ли Минхван вошёл в руководство созданной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антияпон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Чоккидан» (букв. «Отряд красного знамени»). Он занимал долж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руководителя и командующего североманьчжурским направлением, организовывал подпольные ячейки и до 1927 года продолжал антияпон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С 1928 года работал в редакции издававшейс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корейской газеты «Сонбон» («Авангард»), со страниц которой поддерживал иде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днако советская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 принесла ему новые испытания. В 1936 году Ли Минхвана арестовали по обвинению в «контрреволю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приговорили к четырём годам заключения. Он прошёл через лагеря Сибири и Коми, был освобождён в 1941 году, а в 1955 году полностью реабилитирован. Скончался Ли Минхван в 1973 году в СССР.

Жизнь Ли Минхвана была наполнена борьбой и тяжёлыми испытаниями, связанными с беззаветным служением своей Родине и народу. Однако ни японские застенки, ни сталинские лагеря не сломили его дух истинного и непоколебимого борца. А в 2006 году его заслуги признал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смертно наградив орденом «За заслуги в созд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а».

Список литературы:

Ким М.Т. Корейские интернационалисты в борьбе за власть Совет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918-1922).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1979. 112 с.

이민환 李珉煥 URL: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8590 (дата обращения: 5.08.2026).

이민환 李珉煥 URL: https://search.i815.or.kr/dictionary/detail.do?searchWord=&reSearchWord=&searchType=all&index=1&id=7469 (дата обращения: 5.08.2026).

(Материал предоставлен АКРК)

Валентину Сергеевичу Чену — 80!

Общественному деятелю, главному редактору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Чену Валентину Сергеевичу исполнилось 80 лет.

Валентин Сергеевич Чен, журналист, общественный деятель, заслуженный работник культу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одился в Узбекистане 28 июля 1946 г.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филологиче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Хабар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в 1969 г. начал журналист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с работы редактора многотиражной газеты хабаровского завода отопитель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был выпускающим в газете «Суворовский натиск», помощником режиссера на Хабаровском телевидении, корреспондентом, редактором. Затем комментатором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евого радио, заведовал оборонно-спортивным отделом газеты «Молод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 корреспондентом Хабаров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ТАСС, «Медицинской газеты». Переехав в Казахстан, стал спецкором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редакции ТАСС по Среднеазиатскому военному и Восточному пограничному округам и заместителем главного редактора Казахского телеграфного агентства. Вот почему Валентин и сейчас в душе репортер, который в силу обстоятельств работает в другом жанре. И он правильно считает, все то лучшее, что есть в газете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корнями уходит в его прошлый опыт работы и на радио, и в газете «Молод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

Основатель и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первой в России газеты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1997 г.), которая с 1999 г. стала выходить под названием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Это его настоящее детище. Признанием служит тот факт, что она удостоена звания лауреата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за лучшее освещение темы межэтн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и их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СМИротворец-2009», Почетных грамот Минрегиона России, Минкультуры России и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В 2003 г. В.С. Чен стал главным редактором и соавтором уникального издания «Энциклопедия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выпущенной к 140-летию прожива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и. В 2014 г. был главным редактором и соавтором книг «Коре сарам» и «Православие и корейцы», выпущенных к 150-летию доброволь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В 2020г. совместно с В.Н. Кимом и Моисеем Кимом был составителем энциклопедии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Корё сарам».

Один из инициаторов и организаторов первой в истори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равославие и корейцы» в Москве в мае 2014 г. Уполномоченный по вопросам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ООК с отделом по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м церкви и общества московского Патриархата РПЦ.

Член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СССР и России с 1974 г. С 2006 г. — президент Гильдии корейских журналистов в России.

Благодаря его организаторскому и журналистскому таланту, целеустремленности и авторитету В.С. Чена газета популярна как среди читателей в России, СНГ 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читателей мира. Сегодня она стала единственной русско-корейской газетой, которая издаётся и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е только в России, но и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мира, где проживают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ейцы. Более 10 лет назад газета пошла на обновление и взяла курс для широкой аудитории всех тех, кому интересна Корея, корейцы и всё, что с этим связано.

За многие десятилет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журналистике, Валентин Чен стал одним из двух журналистов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работавших ещё в советский период корреспондентом ТАСС. Он был среди основа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в Казахстане, первым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в городе Алматы в 1990 г. Был инициатором создания и реорганизатором газеты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ре ильбо». Автор книг и сборников об истории проживания, православия, СМИ,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и. Газета стала ценнейшим источником информации о всех важных событиях истории, судьбы, достижений коре сарам, летописцем их жизни в течении конца XX и четверти XXI века.

Многогранна деятельность газеты по укреплению един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нации, поддержки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плодотвор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различны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народов и этно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азета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отметившая 25 годовщину основания, вносит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единство народов России, сохранение самобытности, поддержке культуры, языка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развитие дружеских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клад и заслуги Валентина Сергеевича Чена отмечены многочисленными поощрениями, в 2006 году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достоен звания «Заслуженный работник культу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большие достижения в укреплени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за вклад в возрождение, развитие культуры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гражден Почетной грамотой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Также имеются Почётные грамоты 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Минрегиона Росс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Дом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и другие.

Моисей КИМ,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ООК

Женщина впервые назначена командиром корабля ВМС РК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военно-морских сил РК женщина-офицер назначена командиром крупного боевого корабля. Как сообщили в штабе ВМС, 5 августа капитан первого ранга Пэ Сон Ён вступит в должность командира десантного корабля «Токто» водоизмещением 14,5 тысяч тонн. Капитан первого ранга - самое высокое воинское звание для командира боевого корабля. Пэ Сон Ён поступила в военно-морскую академию в 1999 году, когда был открыт набор женщин-курсантов. Окончив академию и получив офицерское звание в 2003 году, она была командиром патрульного катера «Чхамсури-282», оперативным офицером корвета «Намвон» и командиром минного заградителя «Вонсан».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она служила палубным офицером на корабле «Токто», а теперь возвращается на него уже в качестве командира. **(KBS World)**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Ли Чжэ Мён: Мир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ажнее всего

В нынешнюю эпоху потрясений мир и стабильность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 самое важное. Именно мир способствует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росту и улучшению жизни граждан страны. Об этом заявил 5 августа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перед заслушиванием отчётов о работе министерств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обороны,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и по делам патриотов и ветеранов.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мы видели,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когда мир нарушается»,- сказал президент. «Мир - это еда. Мир - это экономика»,- добавил он. Президент также выразил сожаление по поводу того, что вопросы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дипломатии стали поводом для межпартийных споров, в то время как в большинстве развитых стран вопросы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и обороны, как правило, не становятся объектами партийной борьбы. Ли Чжэ Мён поручил министерству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продолжать политику мирного сосуществования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несмотря на отсутствие ответа Пхеньяна на неоднократ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Сеула 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напомнил о важности не заявлений, а конкретных действий.

РК против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притязаний Японии

РК выразила решительный протест Японии, которая высказала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притязания на острова Токто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в «Белой книге по обороне» за 2026 год. В ней говорится, в частности, что «Такэсима» (японское название Токто)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япон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При этом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островами, по-прежнему остаются нерешённы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решительно протестует против повторного заявления Японии о своих несправедливых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притязаниях на Токто и будет решительн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любые противоправные действия»,- заявил 4 август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РК Пак Ту Сун. Он назвал острова южнокорейской территорией с точки зрения истории, географии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В тот же день в МИД РК был вызван советник-посланник посольства Японии Кадзуо Цучия, которому был выражен протест. В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был вызван военный атташе Японии Такэси Нагаёси.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вязей минобороны Ким Хак Чо потребовал немедленно исправить формулировку в "Белой книге по обороне".

Посол США Мишель Стил посетила МИД РК

4 августа Мишель Стил посетила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где передала в протокольный отдел копии верительных грамот. Это позволило ей приступить к обязанностям главы американского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Мишель Стил встретилась также с минист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Чо Хёном. В ходе встречи обсуждалось развитие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еулом и Вашингтоном. После встречи Чо Хён написал на своей странице в социальной сети X, что обменялся с новым послом США мнениями о развитии союза двух стран и призвал её выступать связующим звеном в его дальнейшем укреплении. Альянс с более чем 70-летней историей остаётся осново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К и ключевой опор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в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добавил Чо Хён.

Группа BTS не будет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премию «Грэмми»

Всемирно известная K-pop группа BTS не будет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премию «Грэмми»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 аккаунтах группы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распространённых 30 июля, говорится, что «музыку нужно слушать и любить такой, какая она есть, а не классифицировать по региону или языку». Данное заявление прозвучало менее чем через два месяц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базирующаяся в США Академия звукозаписи представила пять новых категорий наград для 69-й церемонии вручения премии «Грэмми», включая «Лучшее исполнение азиатской поп-музыки». Хотя академия заявила, что изменение призвано улучшить признание азиатских артистов, многие фанаты и эксперты осудили его как попытку оттеснить таких звёзд как BTS от главных наград. Участники BTS поблагодарили своих поклонников за поддержку, не уточняя, может ли группа пересмотреть это решение. 69-я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премии «Грэмми» запланирована на февраль 2027 года.

Группа KATSEYE с песней Animal на 24-м месте в Billboard

Песня Animal 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й гёрлз-группы KATSEYE дебютировала на 24-м месте главного сингл-чарта Billboard Hot 100. Песня отличается энергичным ритмом и запоминающимся припевом .Она передаёт неудержимые внутренние инстинкты и дикую, необузданную сторону натуры. Animal войдёт в третий мини-альбом WILD, релиз которого состоится 14 августа. Ещё одна работа KATSEYE - совместный трек с другими гёрлз-группами LE SSERAFIM и ILLIT под названием Iconic By Mistake - седьмую неделю подряд удерживается в Hot 100, занимая 76-е место. Dracula - ремикс песни Tame Impala с участием Дженни из BLACKPINK – на шестом месте. Группа BTS представлена в чарте сразу двумя композициями: SWIM на 82-м месте и NORMAL на 89-м. **RKI**

Южнокорейский бизнес проявляет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к Северному морскому пути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27 июл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удоходно-логистическая группа PanStar, выбранная оператором проекта, сообщила о высоком интересе бизнеса к предстоящему тестовому рейсу по Северному морскому пути (СМП). По данным компании, которая провела презентацию проекта, после открытия системы бронирования резко выросло число запросов от грузоотправителей, а также появились первые реальные контракты на перевозку грузов.

Как сообщила газета "Сеул Синмун" со ссылкой на руководство компании, 24 июля PanStar совместно с Корейской корпорацией развития морского бизнеса (KOBC) и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е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орговли провела в сеульском выставочном центре COEX презентацию проекта для грузоотправителей. В не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15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рупнейши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компаний, логистических операторов, страхового и судоходного бизнеса, включая Samsung SDS, Hyundai Glovis, CJ Logistics, LX Pantos и другие.

Участникам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зали о параметрах предстоящего рейса. 22 августа из Пусана должен выйти контейнеровоз вместимостью 2800 TEU, который проследует по Северному морскому пути в Роттердам с заходом в Гамбург и Гданьск. На презентации были рассмотрены вопросы безопасности плавания, состояния ледовой обстановки, страхования перевозок, а также обеспечения необходимого температурного режима грузов во время прохождения арктического участка.

Компания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рейс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конец августа - период минимальной ледовой обстановки в Арктике. По оценкам специалистов, средняя температура воздуха в это время составляет от +1 до +8 °C, а небольшая разница между дневной и ночной температурой благоприятна для сохранности грузов.

По данным PanStar, после открытия 22 июля специальной системы бронирования и расчета стоимости перевозок резко выросло число запросов со стороны грузовладельцев и экспедиторских компаний. При этом речь идет уже не только о проявлении интереса - компания сообщила о первых заключенных и согласовываемых контрактах.

Среди грузов, которые уже подтверждены, либо находятся в стадии согласования, - автомобильные комплектующие, синтетические смолы, подержанные автомобили,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жидкие грузы, продукция K-Beauty и стальной прокат. Кроме того, увеличивается число запросов на перевозку транзитных грузов из Японии и Китая, что, по мнению компании, открывает перспективы формирования новой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азиатской логистической сети через СМП.

По итогам тестового рейса PanStar намерена оценить как безопасность эксплуатации маршрута, так и его коммерческую эффективность. В случае успеш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компания рассмотрит возможность запуска регулярного контейнерного сервиса по СМП.

Напомним, что ран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заявило о планах начать регулярные рейсы по Севморпути с 2030 года, выйдя на окупаемость с 2035 г.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Суд РК признал, что Юн Сок Ёль победил на выборах, нарушив закон

Центральный районный суд Сеула 27 июля признал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Юн Сок Ёля виновным 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ложной информации во время президентской кампании 2022 года и приговорил его к 1 году и 6 месяцам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с отсрочкой исполнения наказания на три года. Если этот приговор вступит в законную силу, он станет первым случаем в истории страны, когда суд окончательно признает, что победитель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добился избрания, нарушив закон о выборах. Пока речь идет лишь о решении суда первой инстанции. Защита Юна уже подала апелляцию, а окончательный вердикт, как ожидается, будет вынесен Верховным судом в начал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Суд признал доказанными оба эпизода обвинения

Первый связан с бывшим главой налоговой службы Ён У Чжином, который позднее был осужден по делу о коррупции. Во время президентской кампании оппоненты Юн Сок Ёля утверждали, что тот, будучи влиятельным прокурором, помог своему давнему знакомому, познакомив его с адвокатом, способным оказать помощь в расследовании. Сам Юн во время предвыборных дебатов категорически отрицал, что когда-либо знакомил Ён У Чжина с этим юристом.

Однако суд пришел к выводу, что такое знакомств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имело место, а значит, кандидат сознательно сообщил избирателям ложные сведения. По мнению суда, вопрос касался не бытового знакомства, а возмож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кандидатом своих служебных и личных связей для помощи человеку, оказавшемуся в центре коррупционного расследования. Именно поэтому суд счел этот эпизод способным повлиять на оценку кандидата избирателями.

Второй эпизод связан с Чон Сон Бэ, более известным в Южной Корее как шаман Кончжин. Во время кампании Юн утверждал, что познакомился с ним лишь через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воей партии и что его супруга Ким Гон Хи никогда не встречалась с ним. Суд, однако, установил, что знакомство продолжалось значительно дольше и восходит как минимум к 2013 году. Судьи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для избирателей было важно знать, находился ли будущий президент под влиянием человека, которого многие считали его неофициальным духовным наставником и политическим советником. Поэтому ложные заявления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также были признаны нарушением закона о выборах.

Суд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ложной информации во время избирательной кампании лишает граждан возможности сделать осознанный выбор, а потому представляет серьезную угрозу принципам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выборов.

Если приговор вступит в законную силу,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выдвинувшая Юн Сок Ёля кандидатом на выборах 2022 года, будет обязана вернуть Центральной избирательной комиссии 39,7 млрд вон (почти 30 млн долларов), ранее полученных из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бюджета в качестве компенсации расходов на президентскую кампанию. По южнокорейскому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государство полностью возмещает расходы победителю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однако если впоследствии выясняется, что победитель был осужден за нарушение закона о выборах, партия обязана вернуть всю сумму.

Вместе с тем окончательное подтверждение виновности не приведет к пересмотру итогов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2022 года или признанию недействительным уже состоявшегося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срока Юн Сок Ёля. Решение суда не имеет обратной силы, а сам Юн уже лишился должности после утверждения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м судом решения об импичменте весной 2025 год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главным практическим последствием нынешнего процесса станут почти многомиллионные финансовые потери для партии и еще один вступивший в силу обвинительный приговор в отношении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Защита Юн Сок Ёля уже подала апелляцию, заявив, что суд неверно оценил доказательства и неправильно применил закон. Согласно специальной процедуре ускоренного рассмотрения подобных дел, Верховный суд может вынести оконча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уже в январе 2027 года.

Это уже шестое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против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Юна, по которому вынесено решение суда первой инстанции. Наиболее суровым из уже состоявшихся приговоров остается пожизненное лишение свободы по делу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мятежа в связи с попыткой введени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 декабре 2024 года. Кроме того, продолжается рассмотрение еще нескольких уголовных дел, связанных как с событиями периода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так и с другими эпизодами его президентств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2 тысячи участников, 10 сессий, 9 соглашений: завершил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Энергия Сахалина»

30–31 июля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тал площадкой для обсуждения самых важных вопросов развития 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брались 2 тысячи специалист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ласти, бизнеса и науки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а также из Китая, Индии, Японии, Южной Кореи, Вьетнама и других стран.

«Энергия Сахалина» является выездной площадкой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Это подчеркивает высокий статус мероприятия и его значение для всей отрасли. Сахалин выбрали неслучайно: нефтегазовый комплекс региона является важной основой экономик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имеет большие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 Форум «Энергия Сахалина»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одтвердил статус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как одной из ключевых площадок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будущего 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страны. Для нас это не только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дставить достижения Сахалина, но и важный инструмент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инвестиций, внедрения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развития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я и подготовки собственных кадров. Особенно важно, что все это напрямую работает на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людей и устойчивое развити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есмотря на санкционное давление, регион успешно решает задачи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нефтегазовом индустриальном парке работают 12 резидентов. Они занимаются ремонтом и обслуживанием оборудования, которое используется на шельфовых проектах. Вложено уже более 6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и создано свыше 300 рабочих мест.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на Сахалине компании «Интра Сахалин» и «Айлэнд Дженерал Сервисес – Логистика» открыли еще две площадки.

По словам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ООО «Интра Сахалин» Евгения Филиппова, для острова особенно важно иметь собственные сервисные мощности. Это позволит быстрее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любые внештатные ситуации и снизить зависимость от доставки оборудования с материка.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задач остается газификац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2019 года уровень газификации вырос с 14 до 68%. Чистое топливо пришло в 10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ПАО «Газпром» Виталий Маркелов отметил: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егодня является лидером по газификац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одним из лучши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Во время форума состоялся символический пуск одной из крупнейших «фабрик тепла» в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Газовая котельная № 1 в Поронайске мощностью 60 МВт уже в предстоящем отопительном сезоне обеспечит теплом 12,5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На форуме подписали и ряд важных соглашений. Одно из них заключили ООО «Газпром добыча шельф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ниверситет – единственны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порный вуз «Газпрома». В партнерстве реализуется магистерская программа «Обустройство и эксплуатация морских нефтегазовых месторождений».

Как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компании «Газпром добыча шельф Южно-Сахалинск» Геннадий Гаврилин, программа почти не имеет аналогов в России. Ее особенность в том, что студентов будут обучать специалисты с большим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м опытом.

С нового учебного года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начинает действовать такж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ая магистратура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обслуживание морских (шельфовых) скважин»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Энергии».

Еще одно важ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 новая энергетик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е уже работает Передовая инженерная школа, создан водородный полигон. На форуме подписано соглашение с компанией «Росатом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Оно направлено на подготовку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адров и развитие водород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 энергетике островов.

В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ом манеже в дни форума также работала выставка. Экспозиция познакомила с достижениями российских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помогают развивать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суверенитет страны в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Свои стенды представили более десяти участников, среди них – «Сахалинская энергия», «Газпром добыча шельф Южно-Сахалинск», «Газпром трансгаз Томск», «Газпром Гелий Сервис», «БурСервис», «Нефтегазоперспектива», «ГРЕЙД», «Аквароботех». Выставка была открыта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 ее посетило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человек.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азпром» на Сахалине ввел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первые российские оффшорные вертолеты

31 июля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ПАО «Газпром» Виталий Маркелов осмотрели первые оффшорные вертолеты Ми-171А3 россий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доставленные на Сахалин. С июля этого года три машины используются для доставки пассажиров и грузов на морские платформы, работающие на месторождениях в Охотском море.

— Первые российские вертолеты введены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на Сахалине. И я считаю это закономерным. Самые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и оборудование в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сфере обкатываются именно у нас. И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это именно отечественные разработки. А значит наша технологическая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 каждым годом возрастает. Новые вертолеты позволят повыс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работы на морских платформах и в целом будут служить развитию нефтегаз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региона. Рассчитываем, что в перспективе отечественная летная техника пополнит и парк нашей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Газпром» активно занимается вопросами обеспечения своей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еобходимой техникой, в том числе вертолетной, для освоения шельфовых месторождений газа.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мы проделали огромную работу по созданию первого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оффшорного вертолета. Сахалин всегда являлся флагманом по внедрению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это первые вертолеты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 шельфовом исполнении, поставленные на Сахалин. Ведутся их испытания, обкатка, обучение персонала,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ПАО «Газпром» Виталий Маркелов.

Вертолеты изготовлены по заказу «Газпрома» холдингом «Вертолеты России» Госкорпорации Ростех. Ми-171А3 разработан с учетом рекомендаци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ссоциации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нефти и газа.

— Мы принял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 этом году три вертолета Ми-171А3, успешно выполнили перегон с Улан-Удэнск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завода в Ноглики, где они будут эксплуатироваться – выполнять перевозку пассажиров на морские буровые установки и обеспечивать дежурство по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ым и аварийно-спасательным работам. Данные вертолеты произведены полностью из отечественных компонентов, - рассказал начальник службы летной эксплуатации вертолетов ООО Авиапредприятия «Газпром авиа» Александр Бачурин.

Для повыш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летов над морем Ми-171А3 оснащен авариестойкой топливной системой, которая исключает утечку топлива и его возгорание. На случай вынужденной посадки на воду вертолет оборудован системой аварийного приводнения и спасательными плотами. Современный навигационный комплекс вертолета позволяет выполнять полеты в сложных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ях, включая туман и осадки, а цифровой автопилот – управлять вертолетом в автоматическом режиме.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ертолеты могут быть задействованы для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ых операций: конструкция вертолета позволяет оперативно установить на борт лебедку, медицинский модуль, поисковый прожектор и друг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Высокоточная оптико-электронная система и радиолокационная станция позволяют вести поиски, в том числе в условиях плохой видимости или ночью.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ел встречи с генеральным консулом КНР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и Полномочным Послом Индии в РФ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орума «Энергия Сахалин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переговоры с генеральным консулом КНР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У Дэминем и Чрезвычайным и Полномочным Послом Республики Инди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инаем Кумаром. Ключевой темой встреч стал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 гуманитарной сферах.

С генеральным консулом КНР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судил расширен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логистической, нефтегазовой и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траслях.

— Инвестиции иностранных партнеров могут дать импульс развитию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будут созданы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лучи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налоговые поступления, увеличится разнообразие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для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области предложил бизнесменам из Поднебесной развивать собственные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на территории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Стороны также обменялись предложениями по расширению географии полетов и маршрутов авиасообщения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Китаем, совместному развитию беспило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 инициативам.

— В этом году исполняется 30 лет установлению китайско-росси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партнерства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 25 лет подписанию Договора о добрососедстве, дружбе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В мае 2026 года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совершил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визит в Китай, и главы наших государств подписали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о дальнейшем укреплении партнерства. Вместе мы можем реализовать эт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богата нефтегазовыми и угольными ресурсами, находится на пересечении важных логистических маршрутов, имеет уникальные преимущества для доставки продукции в азиатские страны. Мне известно, что под вашим руковод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достигла больших успехов в развитии экономики и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уже вышла на третье место в России, - отметил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 КНР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У Дэминь.

На встрече с Чрезвычайным и Полномочным Послом Республики Индии в РФ Винаем Кумаром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готов углублять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я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направлений российско-инд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о 2030 года».

— Компании Индии уж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в развитии ключевых шельфовых проек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ы предлагаем расшир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приглашаем индийских партнеров стать резидентами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который создан в регионе для локализации нефтегазовых сервисов, - предлож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тороны также обсудили формат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фере.

— Сегодня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индийский порт Ченнаи связывает Восточный морской коридор,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совместное освоение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Укреплять торгово-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наш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очень важн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этой связи является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регионом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Кроме того, мы рассматриваем возможнос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а также обмена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и практиками и обучения индийских студентов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по компетенциям в области нефти, газа и инженерии, - отметил Винай Кумар.

Винай Кумар пригласил делегац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форуме «ИННОПРОМ. Индия»,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9-11 сентября 2026 года в Нью-Дели. Также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перспективы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объектов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продолжается реализация сразу нескольких круп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ценил ход строительства гостиниц и посетил будущий фуд-молл.

Сегодня «Горный воздух» становится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площадок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десь строят две современные гостиницы, новую канатную дорогу и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которое объединит десятки ресторанных концепций и торговых точек.

— Мы приступили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новой канатной дороги. Параллельно строятся гостиницы на нижней и средней площадках. Проектируется и «Долина Айна», которая появится в распадке между горой Острой и горой Красной. Именно туда будет вести новая канатная дорога. Сегодня мы также посмотрели новый фуд-молл. Уверен, у сахалинского туризма большое будущее. И прежде всего эти проекты создаются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У нижней станции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продолж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ятизвездочного гостинично-дел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В гостиниц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310 номеров, ресторан на 90 посадочных мест, кафе, конференц-зона, СПА и фитнес-зоны, а также помещения для офисов, проката горнолыж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Сейчас строители выполняют устройство арматурного каркаса фундамента третьего блока, возводят внутренние перегородки из газоблока, ведут вертикальную планировку территории и устройство откосов. Ввести объект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планируют в 2028 году.

— Фундамент уже завершен, сейчас возводим каркас здания. С сентября по ноябрь планируем выйти на десятый этаж третьего блока, а в середине сентября приступим к устройству фасадов основного здания. В гостинице будет 261 стандартный номер, 28 полулюксов, 20 люксов и один президентский номер. Также предусмотрена подземная парковка на 15 машиномест, — рас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одря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Губернатор также посетил новый фуд-молл, который готовится к открытию. Общая площадь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составит 3,1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Здесь разместятся 24 ресторанные концепции, 13 торговых точек и 375 посадочных мест. Помимо заведений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площадка станет местом проведения фестивалей, ярмарок, мастер-классов, дегустаций и других мероприятий. Строительно-монтажные работы завершены. Открытие объекта запланировано на 10 сентября.

— К открытию здесь будут работать уже 16 арендаторов, остальные откроются до конца года. Сейчас они ведут отделку помещений и устанавливают оборудование. Мы также сделали сцену, чтобы по вечерам здесь звучала живая музыка, — рассказал подрядчик.

Еще один гостиничный комплекс строится в районе средней станции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В его состав войдут основное здание гостиницы и отдельные шале. Новый объект станет частью един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курорта и расширит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гостей в любое время год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고려인 청년 60명, 한국에서 정체성 찾고 미래 설계

재외동포청, 「K-NEXT FUTURE LINK 2026 GUMI」 지원...
8월 4~8일까지 구미에서 열려
역사교육부터 진로 탐색 · 교류 프로그램 등 통해 국내외
국내외 차세대 교류의 장 마련

국내외 고려인 청소년과 청년 60명이 한국에 모여 고려인의 역사와 정체성을 배우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시간을 갖는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동포청이 지원하고, 사단법인 고려인 글로벌 네트워크와 경운대학교가 공동 개최하는 「K-NEXT FUTURE LINK 2026 GUMI」가 오는 8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경운대학교와 경상북도 구미·경주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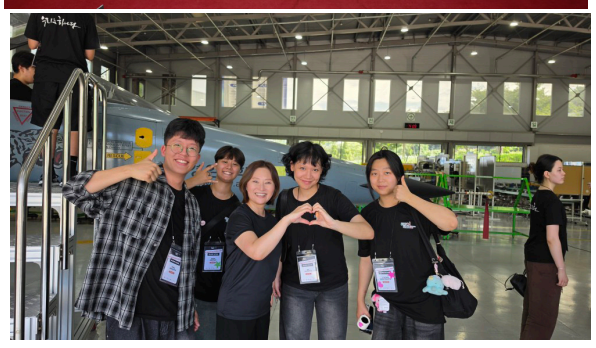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고려인 청소년·청년 약 60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고려인의 이주 역사와 한민족의 문화를 배우는 교육을 비롯해 진로 설계 특강과 멘토링, 문화 체험, 팀 공동과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경주 동궁와 월지, 대릉원, 불국사 등 역사 문화유산 탐방과 산업현장 견학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산업 발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과제를 주제로 팀별 과제를 수행한 뒤 마지막 날 발표와 성과를 공유한다.

또한 국가와 지역이 다른 고려인 청년들이 토크콘서트와 팀 토론 프로그램인 'KGN LAB'을 통해 서로의 삶과 고민을 나누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기반도 마련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참가자들이 리더십과 협업 능력,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고, 세계 각지의 고려인 사회를 잇는 차세대 연결망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축사를 통해 "고려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은 과거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라며 "이번 만남이 서로를 연결하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재외동포청도 차세대동포들이 세계 어디에서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채예진 고려인 글로벌 네트워크 이사장은 "이번 포럼이 참가자들에게 앞으로 함께 성장하고 협력할 평생의 인연이자, 새로운 국제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행사에 참가한 고려인 청년 박엘레나는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에 관심이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배우고, 공감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고려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국제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국내 은행 업무 위해 국제우편 보내던 불편 사라진다"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30일 개시

해외 체류 중인 ㄱ씨는 그동안 국내 은행 대출 연장을 위해 재외공관에서 영사인증 받은 서면 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을 통해 발송했었다. 그러나, 이제 온라인으로 위임장을 작성 후 재외공관에 방문하면 재외공관에서 국내 은행에 해당 위임장을 전자적으로 전달까지 해주어 편리하게 대리인을 통한 금융거래 업무가 가능해진다.

해외 체류 중인 ㄱ씨는 그동안 국내 은행 대출 연장을 위해 재외공관에서 영사인증 받은 서면 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을 통해 발송했었다. 그러나, 이제 온라인으로 위임장을 작성 후 재외공관에 방문하면 재외공관에서 국내 은행에 해당 위임장을 전자적으로 전달까지 해주어 편리하게 대리인을 통한 금융거래 업무가 가능해진다.

국내 은행 업무를 위해 국제 우편을 보내고 며칠씩 기다렸던 재외동포의 불편이 사라진다.

ㅇ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7월 30일 오전 9시(한국 시간)부터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제 재외동포는 365민원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신청한 뒤 재외공관을 방문해 영사 확인만 받으면 된다. 확인된 금융위임장은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자 전송된다.

국내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을 전달받지 않아도 문서확인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을 확인해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국제 우편을 보내거나 원본 서류가 도착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업무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대출, 각종 금융 업무를 처리하려면 대리인을 정한 후 재외공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임장 원본을 국제 우편으로 국내에 보내야 했다. 우편 배송에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배송비 부담과 서류 분실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용 절차도 간편하다.

재외동포가 365민원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신청하면 재외공관에서 영사 확인을 거친 뒤 금융위임장이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자 전송된다. 국내 대리인은 문서확인번호를 활용해 금융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5월 재외동포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와 체결한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첫 성과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참여 금융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디지털 영사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넓혀 재외동포의 생활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 개시에는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7개 금융회사가 우선 참여하며, 앞으로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을 통한 금융거래 수요가 확대되면 참여 금융회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외동포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영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현장] 130명 차세대동포, 인천서 글로벌 경제인의 꿈 키운다

월드옥타, 인천대서 '제24기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입교식
세계 20여개국 청년과 인천대·아주대 학생 등 130여명 한자리
5박 6일간 창업·무역 역량 강화 나서
박종범 회장 "세계 시장 연결할 핵심 인재"

세계 각국에서 모인 차세대 한인들이 인천에서 글로벌 경제인의 꿈을 키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월드옥타·회장 박종범)는 3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제24기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모국방문교육' 입교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8일까지 5박 6일간 진행된다. 미국과 일본, 중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콜롬비아 등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차세대 동포와 인천대와 아주대에 재학하는 청년 등 약 130명은 글로벌 리더십과 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첫날 입교식에는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을 비롯해 노현상 차세대담당 부회장, 안재용 상근부회장, 최원준 차세대위원장, 한성한 차세대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지역별 대표 등 월드옥타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 인천시에서는 김영신 국제협력국장과 남경선 재외동포협력과장이 참석해 차세대 한인 경제인들의 성장을 응원했다.

박종범 회장은 "여러분은 각자의 지역에서 언어와 문화, 시장에 대한 이해를 쌓아온 소중한 인재"라며 "이러한 경험은 대한민국과 세계 시장을 연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에서 얻은 배움과 소중한 인연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서로의 경험과 강점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가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우리 인천은 재외동포청을 품고 있고, 명실상부한 세계적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훗날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의 핵심 주역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기획부총장은 환영사에서 "친교를 나누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여러분이 인천대학교를 찾았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월드옥타와 인천시, 인천대학교가 협력해 기획한 의미 있는 자리로, 6일 동안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많이 고민하고, 장차 일론 머스크보다 더 훌륭한 경제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노현상 부회장은 격려사에서 "품격 있고 자존감 있는 월드옥타의 주역은 바로 여러분"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온 동료들과 교류하고, 미래 글로벌 경제인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어진 교육생 대표 선서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참가자로서의 책임과 자세를 다짐했다.

교육생 대표는 참가자들의 뜻을 담은 선서를 노현상 부회장에게 전달하며 앞으로 진행될 교육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글로벌 경제인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입교식에 이어 노현상 부회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노 부회장은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와 차세대 한인 경제인의 역할, 월드옥타 네트워크 소개 및 이를 활용한 성장 전략 등을 주제로 강연하며 참가자들에게 적극적인 도전과 실행을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6일간 창업·무역 관련 강의와 특강, 프로젝트 발표, 기업 방문, 국내외 차세대 청년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월드옥타는 1981년 설립 이후 전 세계 한인 경제인을 연결하고 대한민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무역 증진을 지원해왔다. 특히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은 미래 한인 경제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대표 사업으로, 세계 각 지역에서 차세대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재외동포신문)

이모저모

(2면의 계속)

항로를 따라 해군 군함들은 침몰했던 해역을 지나면서 군인으로서 예우를 갖추는 추모의식도 계획하고 있다.

2025년 태평양 함대는 처음으로 유사한 행사를 개최하여 마가단과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 아나듸리, 프로비제니야, 세웨로쿠릴스크, 쿠릴스크, 유즈노쿠릴스크, 코르사코브항을 방문했다. 당시 항해에 '어드미랄 판텔레예브' 대형 대잠함과 '소베르센늬'호위함(연안 전투함), '마가단' 잠수함을 비롯한 군함들이 대거 참여해 극동 항구의 주민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Корабл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отправятся в поход памяти «Сила в Правде-2026» с заходом в Корсаков

В сентябре 2026 года стартует агитацио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ая акция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Сила в Правде-2026». Отряд боевых кораблей отправится в поход к истокам флота, посетив Колыму, Сахалин, Камчатку, Приморье и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флота.

Ключевым пунктом маршрута станет порт Охотск — именно здесь 295 лет назад была образована Охотская военная флотилия, правопреемником которой является современный Тихоокеанский флот. Также заходы запланированы в порты Магадан, Корсаков, Ванино и Усть-Большерецк. Финиш акции — главная база ТОФ, город Владивосток.

В портах жителей ждут концерты с участием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флота,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морской пехоты, выставки вооружения и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уникальные экспонаты Музея ТОФ.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проведут памят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местах боевой славы, уроки мужества и торжественный прием школьников в «Юнармию». По маршруту запланированы ритуалы отдания воинских почестей в местах гибели кораблей ВМФ.

В 2025 году ТОФ впервые провел аналогичную акцию, посетив Магадан, Петропавловск-Камчатский, Анадырь, Провидения, Северо-Курильск, Курильск, Южно-Курильск и Корсаков. Тогда в походе участвовали большой противолодочный корабль «Адмирал Пантелеев», корвет «Совершенный», подводная лодка «Магадан» и другие суда. Акция вызвала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у жителе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портов.

사할린의 여성 주민, 유명 온라인쇼핑몰에서 일주일 만에 8백40만 루블리 편취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여성 주민이 메신저앱에서 결제시스템으로 우회할 수 있는 해커시스템을 발견하고, 단 일주일 만에 자신의 카드로 수백만 루블리를 빼돌렸다.

온라인쇼핑몰 사할린 지역 대표가 유즈노사할린스크 경찰에 거액의 손실에 대한 신고를 한 가운데 사할린주 경찰 수사관들이 러시아 최대 온라인쇼핑몰 중 하나를 대상으로 발생된 대규모 사기행각을 적발했다. 사할린주 내무국은 이 쇼핑몰이 와일드베리스인(Wildberries)지 오존(Ozon)인지 아니면 다른 쇼핑몰인지에 대해서 아직 밝히지 않았다. 사할린 경찰들은 긴급수사조치로 용의자 추적에 나서 찾아냈는데 피의자는 이전에도 범죄 전력이 있는 33세의 유즈노사할린스크 여성 주민이었다.

수사관들은 이 여성이 메신저 특정 채널 중 하나에서 쇼핑몰의 결제 알고리즘을 해킹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한 지침을 알아낸 것을 밝혀냈다. 은행 결제시스템이 쇼핑몰과 연동된 취약점을 악용하여 영악한 여성은 쇼핑몰 내부 가상계좌의 전자지갑에 실제 입금하지 않고도 입금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알아냈다. 이렇게 '공중' 가상계좌에서 얻은 돈을 피의 여성은 자신의 개인 은행 계좌로 전체 이체하여 실제 현금으로 인출했다.

2023년7월 27일부터 8월3일까지 사기를 친 여성은 단 일주일 만에 840만 루블리를 성공적으로 편취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버렸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내무국은 해킹사건과 관련해 이 여성을 러시아 연방형법 제 159조에 따라 사기죄 혐의로 기소하여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의자는 출국금지 및 거주지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Сахалинка за неделю украла у популярного маркетплейса 8,4 млн рублей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шла в мессенджере хакерскую схему обхода платежной системы и всего за неделю вывела на свои карты миллионы рублей.

Сотрудники уголовного розыск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крыли масштабную кибераферу, жертвой которой стала одна из крупнейших в России торговых онлайн-площадок. Региональ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аркетплейса обратились в полицию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 заявлением о пропаже крупной суммы денег. О том, была ли это площадка Wildberries, Ozon или другой крупный игрок рынка, в пресс-службе УМВД пока не сообщили.

В ходе оперативно-розыск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сахалинские полицейские быстро вышли на след подозреваемой. Ею оказалась 33-летняя жительниц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ранее уже имевшая проблемы с законом. Как установил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и, женщина обнаружила в одном из тематических каналов в мессенджере подробную инструкцию по взлому платежных алгоритмов маркетплейса. Используя уязвимость банковской системы, предприимчивая сахалинка научилась имитировать пополнение внутреннего электронного кошелька площадки без реального внесения средств. Получив на виртуальный счет «воздух», злоумышленница тут же выводила вполне реальные деньги на свои личные банковские карты.

Всего за неделю — с 27 июля по 3 августа 2023 года — мошенница успела вывести и потратить на собственные нужды 8 миллионов 400 тысяч рублей.

Следователи УМВД по городу Южно-Сахалинску возбудили в отношении хакерши-любительницы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по статье о мошенничестве (ст. 159 УК РФ). На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следственных действий фигурантка будет находиться под подпиской о невыезде.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RADIX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6 г.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47 руб. 6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싣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윅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3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